

아이 좋아! 청렴한 세상



발행일 | 2021년 8월 10일 발행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청렴감사담당 055-210-5202

주요소식

청렴 방방곡곡 본청

경남교육청, 이해충돌 방지법 사전 교육으로 청렴 한걸음 도약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5일, 교육청 별관 공감홀에서 부교육감, 국·과장을 포함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대면 및 비대면 TV 시청) 국민권익위원회 강사 초청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사전예방을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정부의 반부패 추진방향-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해 설명했다.

특강에서 권근상 센터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 신고 절차, 위반할 시 제재 내용 등 주요 조문에 대해 상세히 해설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사례 및 실제 사건 등을 소개하여 직원들이 이행 충돌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강에 이어 감사관 청렴감사담당에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안내도 진행했다.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와 관련한 제도, 사례를 통해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민재 감사관은 "이번 특강은 국·과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이 이해충돌 상황을 직접 예방·관리하고, 각종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렴 방방곡곡 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반부패 청렴캠페인 및 진주행복교육지구 홍보' 진행

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모으고 모이는 장터'에서 '진주교육지원청 반부패 청렴캠페인 및 진주행복교육지구 홍보'를 진행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모모장터는 경남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자체,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경남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해, 안전체험프로그램, 플리마켓, 길거리 전시회, 친환경 체험 부스, 로컬푸드 장터 등으로 진행한다.

후원단체로 참여한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모모장터 행사 봉사과 더불어 2곳에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진주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청소년 도시농부 농작물 직거래장터와 청렴문화 확산 실천서약서 작성, 청렴 2행시 적기 행사를 진행했고 진주 행복교육지구 홍보와 더불어 에코백과 모기기피제 등 꾸러미를 600여 명에게 배부했다.



거제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7월 월례회 개최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2021년 상반기 청렴 정책에 대한 추진 실적 공유와 청렴 공감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청렴 실천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의령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대상 청렴챌린지 실시
의령교육지원청, 청렴은 뜨겁게! 청탁은 차갑게! 관내 학교 대상으로 청렴챌린지 실시



합안교육지원청, 청렴 실천 약속해요!
합안교육지원청, 청렴 실천 약속해요! 슬기로운 청렴 생활을 위한 합안교육지원청의 청렴 실천 5가지 약속



사천교육지원청, 올림픽 전국소년체육대회 겨냥 청렴 실천 메시지 '스마일' 홍보

청림극장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



학교를 소재로 한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를 소개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부당하게 퇴학을 당한 강복수(배우 유승호)가, 어른이 돼 학교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의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사랑도 다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강복수의 학창 시절 짝사랑 상대인 손수정(배우 조보아)은 모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계약이 만료될 때쯤 '위험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행정실장: 이번 학기로 계약 만료하시는 손수정 선생님 맞죠? 5천이면 정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손수정: 애들 가르치는 선생직을 돈 주고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를 통해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탁이 아닌, 적절한 절차와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렴한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모범택시」



최근 사회적 문제들을 다룬 드라마 한 편이 막을 내렸는데요. 드라마 <모범택시>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 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배우 이제훈)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힘 있는 악덕 기업인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법을 악용하는 모습에 몹시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장: 유데이터 건 고소 취하됐어. 담당변호사가 내가 예전에 사수로 모셨던 선배님이야. 이번에 검사장 퇴사하시고 로펌으로 옮기셨는데 첫 자문으로 유데이터 건 맡았다고 연락을 주셨어.

담당검사: 그래서요? 혹시 전관예우?

검사장: 전관예우는 무슨. 한술밥 먹던 선배가 사회 나가서 첫 번째로 맡은 일이니깐 우리도 도리는 하자는 거지.

우리 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6조(특혜의 배제)를 통해 '지연, 학연, 종교, 직장연고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년 5월에 시행된다는 점, 전관예우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도 눈여겨봐야겠지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너무나 유명한 영화라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조선 광해군 8년, 독살 위기에 놓인 '광해'(배우 이병헌)를 대신하여 왕 노릇을 하게 된 천민 '하선'(배우 이병헌)이 왕의 대역을 맡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최근 광해군이 행했던 실리외교의 대외정책과 대동법 등의 민생 안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며 더 이상 광해군은 비운의 폭군이 아닌 개혁 군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왕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천민이 진정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다채로운 이야기와 예상치 못한 재미를 형성합니다. 특히, 사람과 백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아는 하선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한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는데요.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그 사대(事大)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 갑절, 백 갑절은 더 소중하오!”

우리 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신뢰와 공정의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약속, 배려, 절제, 책임, 정직, 공정'의 청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경남 교육, 청림으로 만들겠습니다.